

2018년 8월 1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무역분쟁 협상 재개 기대로 상승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부총리의 실무진들 협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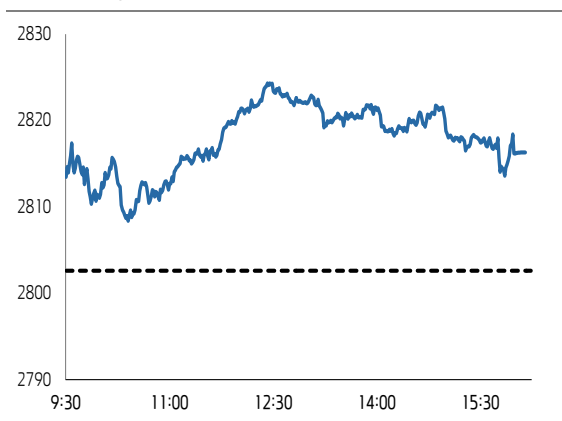
### 미-중 무역 분쟁 우려 완화

미 증시는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무역분쟁 관련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을 모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더불어 소비자신뢰지수를 비롯한 경제지표 또한 개선된 결과를 내놓으며 투자심리 개선도 우호적인 영향. 한편, 최근 하락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하는 등 안정을 찾은 점 또한 상승 요인. 다만,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무역분쟁이 단기적으로는 고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행복하게 된다” 라고 주장하자 상승폭은 제한(다우 +0.43%, 나스닥 +0.55%, S&P500 +0.49%, 러셀 2000 +1.07%)

미국 일부 언론이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무역분쟁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 다만,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된 것일 뿐, 언제, 어디서 진행하는지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 이러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짐. 최근 일명 FANG 기업들의 조정에 가려지기는 했으나 산업재 또한 부진. 캐터필러가 관세 부과 여파로 하반기에 2 억달러 이상의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비용 부담이 화두. 미국이 목록을 발표한 2 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제품 대부분 중간재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시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 이로 인해 미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자 최근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관련 발언들은 온건해지는 양상.

중국 정부는 최근 무역분쟁과 관련 언급을 자제. 이는 8 월초에 있을 베이다이하 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 베이다이하 회의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무역분쟁과 관련된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결정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특히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인 부분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이어지며 올해 베이다이하 회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모습. 이를 감안 중국의 무역정책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이다이하 회의 전까지는 미-중 무역분쟁은 해결보다는 관망에 중점을 뒀다 될 듯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295.26	+0.08	홍콩항셱	28,583.01	-0.52
KOSDAQ	775.52	+0.74	영국	7,748.76	+0.62
DOW	25,415.19	+0.43	독일	12,805.50	+0.06
NASDAQ	7,671.79	+0.55	프랑스	5,511.30	+0.37
S&P 500	2,816.29	+0.49	스페인	9,870.70	+0.17
상하이종합	2,876.40	+0.26	그리스	761.23	+0.40
일본	22,553.72	+0.04	이탈리아	22,215.69	+1.2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애플, 시간외로 2% 상승

화이자(+3.47%)는 달러 강세 여파로 매출이 부진한 결과를 실적 발표를 한 여파로 하락 출발 했으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머크(+1.64%), 암젠(+3.11%), 길리어드사이언스(+1.98%) 등 제약 바이오 업종도 동반 상승 했다. GE(+3.57%)는 디지털 비즈니스 분야를 매각 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 했다. 한편, 보잉(+1.49%), 캐터필라(+2.90%), 디어(+4.77%) 등 항공기, 산업재 부문은 미-중간의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했다. 반면, JP모건(-1.52%), 웰스파고(-2.05%), BOA(-1.37%) 등 금융주는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페이스북(+0.89%), 넷플릭스(+0.74%)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반면, 아마존(+0.10%), 알파벳(+0.23%)은 다른 두 종목과 달리 견조한 흐름을 보였던 점을 감안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애플(+0.20%)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했다. 한편, 시간외로 실적을 발표한 이후 개선된 실적 발표되며 3% 상승 하고 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0.02%	대형 가치주 ETF	+0.22%
에너지섹터 ETF	-0.38%	중형 가치주 ETF	+0.75%
소매업체 ETF	+0.14%	소형 가치주 ETF	+0.69%
금융섹터 ETF	-0.71%	배당주 ETF	+0.79%
기술섹터 ETF	+0.27%	변동성 ETF	-2.88%
소셜 미디어업체 ETF	-0.33%	대형 성장주 ETF	+0.58%
인터넷업체 ETF	-0.11%	중형 성장주 ETF	+0.91%
리츠업체 ETF	+1.94%	소형 성장주 ETF	+1.34%
주택건설업체 ETF	+1.25%	신흥국 고배당 ETF	+0.94%
바이오섹터 ETF	+2.07%	신흥국 저변동성 ETF	+0.77%
헬스케어 ETF	+1.05%	하이일드 ETF	+0.20%
곡물 ETF	-0.28%	물가연동채 ETF	+0.15%
반도체 ETF	-0.19%	Long/short ETF	-0.1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69.16	-0.32%	+1.91%	+2.95%
소재	374.38	+0.90%	+1.70%	+3.43%
산업재	645.78	+2.12%	+3.38%	+7.05%
경기소비재	885.15	+0.44%	-0.44%	+1.55%
필수소비재	549.60	+0.45%	+1.73%	+4.43%
헬스케어	1,028.39	+1.01%	+1.34%	+6.10%
금융	463.85	-0.68%	-0.28%	+4.45%
IT	1,243.45	+0.30%	-3.61%	+1.04%
통신	149.60	-0.77%	+0.58%	+0.77%
유틸리티	268.11	+1.06%	+1.46%	+1.02%
부동산	203.92	+1.89%	+2.24%	+1.5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1.05% MSCI 신흥 지수도 0.54%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158 계약)에 힘입어 0.90pt 상승한 298.8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12.4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미-중 무역분쟁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상승 했다. 최근 한국 증시가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관련 소식은 한국 증시 반등 가능성을 높인다. 더불어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등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한국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다. 지난 7 월 20 일까지의 수출이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오늘 발표되는 7 월 수출이 양호한 결과를 발표한다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일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기준선인 50 을 상회하는 등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크지 않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여기에 최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 또한 한국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변 여건이라는 점에서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23 일 인민은행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이후 한국 증시는 나스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인 점이 이를 반증한다.

미 증시 마감 후 애플의 실적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애플은 미 증시 마감 후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2% 상승하고 있다. 애플 실적 발표 이후 큐로브, 스카이웍 등 부품주를 비롯해 FANG 기업들도 0.5% 내외 상승을 보이고 있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개선

미국의 6 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도 전월 대비 0.4% 증가하며 예상치와 부합된 결과를 내놓았다. 한편, PCE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2%로 발표 되었다.

미국 7 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127.1)이나 예상치(126.5) 보다 양호한 127.4 로 발표되었다.

7 월 시카고 PMI 지수는 전월(64.1)이나 예상치(61.9)를 상회한 65.5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 유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톤다운 언급으로 하락

국제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등에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 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언급 한 점도 국제유가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트럼프의 제안에 대해 강한 어조로 반대 했다는 점을 감안 여전히 협상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한편,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유럽과는 핵 합의가 유지하고, 경제적 교류를 계속 하겠다고 발표했다.

달러지수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엔화 약세폭이 확대된 점도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엔화는 BOJ 가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본의 물가지수와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미-중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된 점도 약세 요인중 하나였다. 한편, 유로화는 달러 강세 여파로 달러 대비 소폭 약세를 보였다. 특히 GDP 성장률이 예상치(qoq +0.4%) 보다 소폭 하향 된 0.3% 증가에 그친 점이 영향을 줬다.

국채금리는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 일본 국채가 하락하자 동반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미-중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하락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불구 FOMC 를 앞두고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완화되자 상승 했다. 미국의 대두가 3% 넘게 상승하는 등 곡물가격 또한 동반 상승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41% 하락 했으나 철근은 0.84%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68.76	-1.95	+0.35	Dollar Index	94.492	+0.15	-0.13
브렌트유	74.21	-1.77	+0.56	EUR/USD	1.1698	-0.07	+0.09
금	1,233.60	+0.17	-0.08	USD/JPY	111.78	+0.67	+0.52
은	15,559	+0.14	+0.25	GBP/USD	1.3130	-0.02	-0.11
알루미늄	2,082.50	-0.10	-0.01	USD/CHF	0.9899	+0.17	-0.37
전기동	6,323.00	+1.22	+0.97	AUD/USD	0.7431	+0.32	+0.11
아연	2,636.50	+3.10	+1.29	USD/CAD	1.3009	-0.21	-1.11
옥수수	386.50	+1.38	+5.60	USD/BRL	3.7531	+0.60	+0.11
밀	553.75	+1.33	+8.53	USD/CNH	6.804	-0.33	-0.10
대두	919.00	+3.14	+5.24	USD/KRW	1118.70	-0.13	-1.45
커피	109.90	-1.35	-0.95	USD/KRW NDF1M	1112.40	-0.45	-1.30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960	-1.30	+1.12	스페인	1.396	-2.70	+2.80
한국	2.570	-0.10	0.00	포르투갈	1.731	-3.30	-4.00
일본	0.062	-4.00	-2.40	그리스	3.938	+7.90	+10.30
독일	0.443	-0.30	+4.60	이탈리아	2.717	-6.50	+3.70